

# 동구청 “노점상 자릿세 못건게 하겠다”

## 광주시, 시장상인회 불법행위 대대적 현장단속 동부경찰, 갈취 여부·사용처 등 다각 수사 검토

광주 남광주시장 한 상인회가 관리비 명목으로 영세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19일 6면)과 관련, 광주시와 동구가 이들의 행태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노점을 연 영세 상인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온 데 대해 위법 사항 검토 등을 거쳐 수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와 동구는 19일 남광주시장에서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 시장상인회 소속 상인들과 면담한 뒤 더 이상의 영세 노점

상들을 상대로 한 자릿세(매일 1000원) 부과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동구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해당 상인회와 노점상이 ‘갑을(甲乙) 관계에 있다고 판단, 더 이상의 ‘자릿세’ 부과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상인회 측은 42년간 자체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부과해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측은 지난 18일 영세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공유지에 좌판을 펼치

록 해준 사실이 들끓날 것을 우려, 영세 노점상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물건을 발로 걷어차고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등 횡포를 부린 바 있다.

경찰도 상인회의 ‘자릿세’ 부과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만큼 서민 갈취 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가을들녘 겨울준비

19일 오후 담양 무정면의 한 논에서 불그스레한 가을 햇볕 아래 농부들이 수확 후 남은 벼단을 묶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업주 최씨 “불법 건축물 사실 몰랐다”

### 담양 펜션 화재 관련 경찰 조사

경찰이 담양 펜션 화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최모(55) 의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담양경찰청은 19일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 “최씨가 무허가 불법 바비큐장 건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펜션이 불법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도 “최씨 등 3명이 공동으로 펜션 사업에 투자했다

는 증언도 확보했고 최씨가 이 과정에서 무단 점용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 부부는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난 담양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 19일 오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이날 조사에서 “실질적 주인이 아니고 펜션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으며 불법 건축물인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김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남편 닮았다” 두살배기 딸 살해 후 자수

### 광산경찰, 30대 엄마 구속영장

광산경찰청은 19일 2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A(여·38)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광주시 광산구 S교회에서 자신의 딸(2)을 뒤에서 끌어안고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께 아들과 함께 교회를 빠져나와 10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딸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년 전 첫째 아들

을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아이들과 정처없이 길을 걷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6살 된 어린 아들은 엄마의 범행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과 아이들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길을 걷다가 남편을 닮은 딸을 보고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딸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학교비정규직 오늘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가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서울 시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2만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고 서울에서는 조합원 중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이들 중 60~70%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파업 양일간 학교 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행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2    몰림 04:36  
해질 17:24    달림 16:01

#### 떨어지는 가을 낙엽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14	보성	맑음	-2/14
목포	맑음	3/14	순천	맑음	3/14
여수	맑음	7/14	영광	맑음	0/14
나주	맑음	-1/15	진도	맑음	1/14
완도	맑음	2/15	전주	맑음	1/15
구례	맑음	-2/15	군산	맑음	1/13
강진	맑음	-1/15	남원	맑음	-1/14
해남	맑음	-1/15	축산도	맑음	9/13
장성	맑음	-1/1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동~남	0.5	
남해	남부	남서~서	0.5	남동~남	0.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동~동	0.5
남해	서부	면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38	00:01
	18:10	12:42
여수	07:44	01:08
	19:41	13:43

#### ◇주간 날씨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	☀	☀	☁	☁	☁	☀
3/16	6/16	3/15	6/13	6/11	5/13	4/14



#### ◇생활지수

식중독	34
운동	60
빨래	70

## 광주 첫 얼음

### 22일小雪 앞두고 기온 하락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22일)을 앞두고 광주에 첫 얼음이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0.3도까지 내려가면서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7일 늦고 평년보다 10일 늦은 것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2.3도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땅에서 자란 풀

위의 공기온도인 최저초상온도는 -3.7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輻射冷却)에 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첫 얼음이 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광주·전남지역의 최저기온은 -2~7도, 최고기온은 13~15도 분포를 보였으며, 21일은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 14~17도로 주말부터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 대학생 10명중 8명

### “외모 지적 받을때

### 가장 모멸감 느껴”

대학생들은 타인의 언행 중 외모에 대한 지적 때문에 모멸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학보사인 ‘중대신문’은 중앙대 학생 13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4%가 ‘타인의 언행에 모욕·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욕·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42.3%(설문 대상자의 33.6%)는 ‘외모에 대한 발언’(복수응답)이 원인이었

다고 밝혔다. 스펙(35.6%), 경제적 능력(31.7%), 학벌(21.2%) 등이 뒤를 이었다.

모욕감이나 모멸감을 느낀 이유로는 절반인 50.0%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29.8%),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12.5%),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7.7%)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모욕감·모멸감을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더 잘해서 찌소리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앞으로 무시를 못하게 내가 더 나아져야겠다’라는 식의 답변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전체 응답자의 77.1%는 ‘현재 외모나 스펙 관리로 나를 가꾸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음시

명품농산물의  
또 다른 이름

# 감풍미인

깨끗한 물, 넉넉한 햇살,  
내장산 깊은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오염되지 않은 동진강의 맑고 풍부한 물!

땅을 지키며 근면함으로  
우리 농업을 굳건하게 지켜온 정음 사람들

대한민국 1%를 지향하는 준비된 브랜드 **감풍미인**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빚어낸 정음의 대표 브랜드 **감풍미인**

품종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더해져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감풍미인**

쌀과 한우, 수박, 약주, 토마토, 복분자까지

**감풍미인**은 정음시가 모든 역량을 투자해서  
생산한 최고급 농산물입니다.

토마토

복분자

수박

약주

쌀

한우